

2023년 07월 02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07편 9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429(통489)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욕기 29장 1~17절(구약p.787)

1. 욕이 풍자하여 이르되
2.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3. 그 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4.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 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5. 그 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6.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7. 그 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8.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9.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10.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11.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12.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 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13.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14.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겹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15.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16.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17.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 말씀선포 /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막론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부자들 중에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학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욥은 부자이면서도 겸손하게 악자를 돌보고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이 말뿐이 아니라 이웃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는 실천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욥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바른 방법을 배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진실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욥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1.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그때 하나님의 등불이 자신을 비추어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을 힘입어 걸어 다녔던 것을 회상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 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다윗도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과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빛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누렸던 모든 부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결과였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시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당신의 양들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시23:3). 또한 욥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높이 받들고 존경받았다고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그 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 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라고 했는데, 성문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은 권위를 인정받아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젊은이들이 자신을 보고 숨고 노인들이 일어났다는 표현은 욥의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욥이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따라 겸손히 행한 결과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며, 빛이 되심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욥은,

2.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 욥은 자신의 의를 옷으로 삼았고 정의가 자신의 겉옷과 모자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불의와 짝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5~17절에서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욥은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는 등 정의를 위해 힘썼음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음을 말합니다. 또한 욥은 빈민과 고아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사람도 욥을 축복했고, 과부는 욥 덕분에 기뻐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욥은 또 자신이 맹인의 눈이 되어 주었고, 다리 저는 사람들의 발도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그는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약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욥은 불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강하게 정의를 세웠고, 약한 자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낮은 자가 되었습니다. 욥의 이러한 삶은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참된 겸손과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슬픔을 당한 자, 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고,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치료자요, 위로자시며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옴은,

3.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 옴처럼 정의를 행하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당신께 행한 것이고,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당신께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를 당신과 동일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옴의 삶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옴처럼 작은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무언가를 보상할 수 있는 사람,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 자신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바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아들의 생명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함으로 영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을 좇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마6:20).”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랑을 전하며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참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일 년 중 첫 농사인 보리농사를 마치고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성도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죄로 죽은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 매일 매일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받은바 은혜를 증거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받은 사랑을 이제 사랑이 필요한 많은 자들에게 전하며, 다른 사람의 처지에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줌으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셨듯이 그 사랑 앞에 겸손하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34(통491)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 폐 회 / 주기도문